관악산 화기 다스리는 비보사찰

〈火氣〉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⑭ 관악산 연주암

서울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봉우리마다 풍광이 남달라 문인들이 자주 찾은 명소였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다.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암자가 있다. 연주암(戀主庵)과 연주대이다. '연주' 글자대로 해석해보면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이다.

글자의 내용 따라 이곳에 여러 이야기가 실렸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고려의 신하들이 사라진 왕조를 연모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조선조 이야기로는 왕위에 대한 안타까움에 실렸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위를 버리고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주군을 연모했다는 내용이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곳의 사연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라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의미를 붙이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듯 서있는 암석 위에 자리한 이곳에 오면 팍팍한 능선을 오르느라 근심을 내려놓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연주암의 모습을 보면 욕심이 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연주암 창건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사찰의 내력을 보면 신라시대 의상대사의 창건이라 적혀 있지만 사중에서도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체적으로 고려후기에 창건되었다가 조선 초 중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성의 천도와 생각해볼 때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관악산 봉우리 모습은 삐죽삐죽하여 멀리서 보면 화로 같다. 한양을 도성을 정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었다. 무학대사를 시켜 계룡산을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경과도 거리가 먼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직 고려를 지지하는 신료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먼 곳은 내키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 한양만한 곳이 없자 도읍으로 정했다. 관악산이 품고 있는 화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썼다. 제일 먼저 경복궁 앞에 불을 감시하는 상징의 동물 해태를 세웠다.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제작해 화기를 눌렀다. 후에 숭례문 남쪽에 연못[南池]을 만들어 수(水)로 화(火)를 다스렸다. 관악산과 도성 사이 한강이 있는 것도 위안이 되었다.

그래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불교에서 전해지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국시로 정해 불교를 배척하던 왕실이었지만 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불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연주암은 관악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다. 산에 창건하는 것이 사찰이지만 정상 부근에 세우지는 않는다. 연주암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찰이 많지만 정상은 아니다. 그런데 왜 연주암은 정상일까?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정상 부근에 세우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라 한다. 신라 말 도선국사가 주장한 이 사상은 흉(凶)하고 역(逆)한 곳에 사찰과 탑을 세워 그 기운을 눌러 왕조와 민생을 편안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고려왕조는 이 사상을 깊게 믿고 있었다. 고려는 서울을 남경으로 칭하며 중요하게 여겼다. 그때에도 관악산의 화기는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그 기운을 진압하기 위해 절과 탑을 세웠다. 지금 연주암 경내에 서있는 고려 양식의 3층 석탑이 그런 내용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주암은 불교를 배척하고 호기롭게 시작한 새로운 왕조의 한 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사명(寺名)은 영주암(靈珠庵)

관악산은 풍경이 아름다워 문인들이 많이 찾았다. 조선 초 이곳을 찾은 문인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영주암(靈珠庵)이다. 세종 9년(1427)에 태어나 세조 2년(1456)에 요절한 조선 초기 문인 성간(成侃)은 관악사에 머물면서 관

산 정상 사찰 건립 이유
기운 누르기 위한 목적
설화 더해지며 연주대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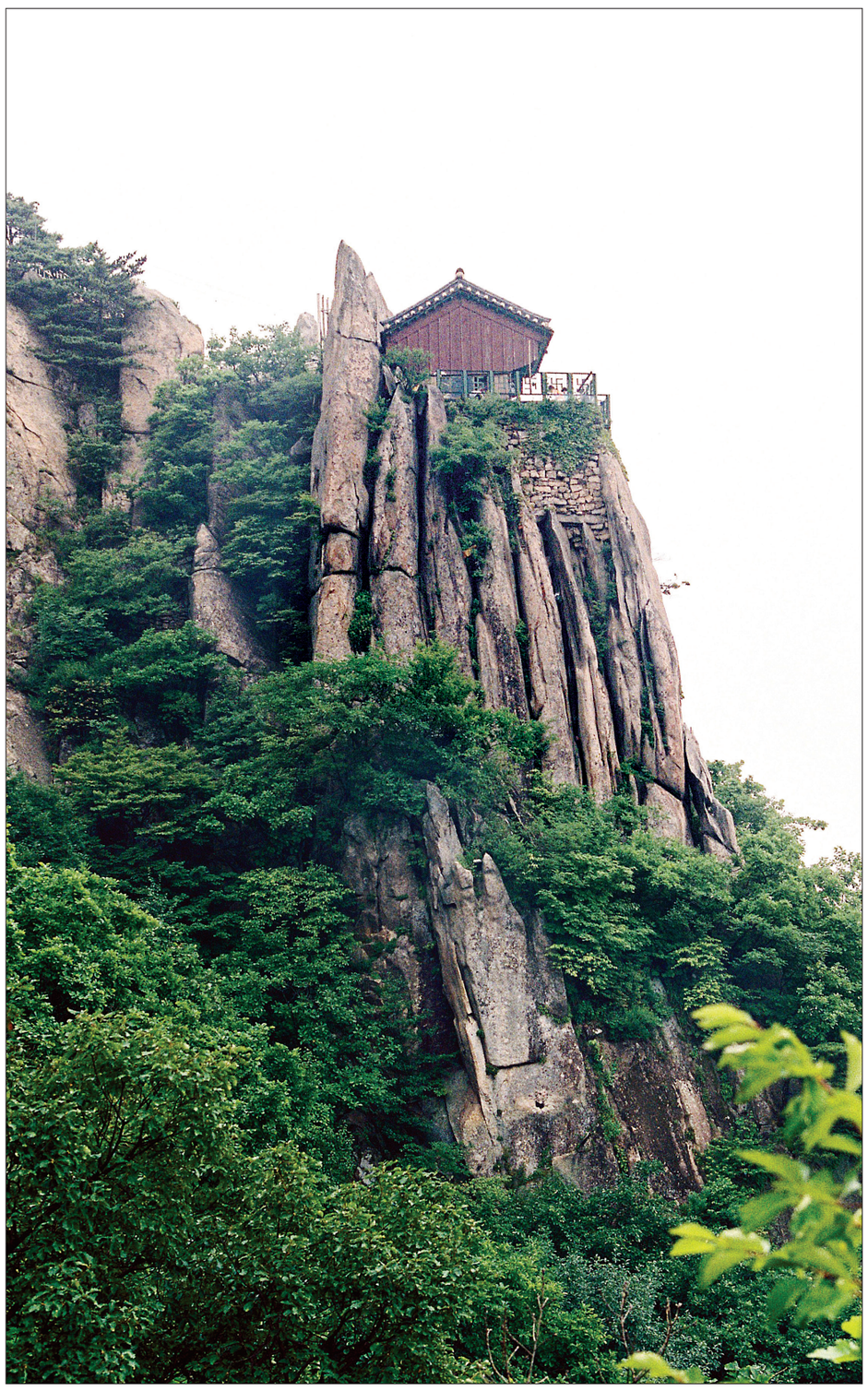
악산을 구경한 후 유북암기(遊北岩記)를 남겼다.

그 기록을 보면 승려의 안내로 관악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풍광을 감상했다. 그런데 관악 북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자 성간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북쪽은 숲이 깊고 바위가 험해 가기 어렵다고 말렸다. 그래도 성간은 꼭 가보고 싶어 덤불을 베어 내고 넝쿨을 잡으면서 북녘에 이르렀다. 바위가 집 천장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빙 둘러서 천 길이나 되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아찔하였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두 다리를 뻗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나오는 관악사는 지금 폐사가 되어 터만 남아있다. 그 터에서 보면 영주대가 있는 곳이 북쪽이다. 지금 봐도 경관이 수려하니 예전인들 수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간의 글에 영주암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냥 그 광경만 바라보며 '조물주가 나를 위해 펼쳐 놓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자연풍광에 대해 만족감만 전하고 있다.

이곳이 영주암으로 표현한 것은 성현(成俔)이 남긴 허백당집(虛白堂集)이다. 세종 21년(1439)에 태어나서 연산군 10년(1504)에 졸한 그는 앞서 관악산에 오른 성간의 동생이다. 그는 '관악산에 올라가 영주암에 이르러 짓다[登冠岳山到靈珠菴]'는 시를 남겼다. 시의 내용 가운데 영주암을 표현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팡이 짚고 올라서 영주봉에 이르고 보니
천 길 깎아지른 절벽은 은하수에 닿은 듯
아래로 땅을 볼 수 없고 사방이 아득하네
한 걸음씩 기어오르니 머리털 거꾸로 서라
이 신세 허무한 지경에 붙여진 것 같구려
처음 바위 구멍을 따라 맨 꼭대기에 오르니
외로운 암자가 공중에 덩실 떠 있는 듯한데
창을 열고 보니 단청 빛이 찬란하여라
그 안에는 유마의 얼굴 석상이 안치되었고
별자리는 지척이라 손으로 딸만도 한데
석양이 넘어갈 무렵 세 장대쯤 불그레하네."



삐죽삐죽한 봉우리로 화로와 같이 생긴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연주암이다.

이때 관악산 최고봉은 영주봉으로 불렸던 것 같다. 영주암과 영주대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연주대에 유마거사가 있었다는 점으로 지금 나한신앙 이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명칭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 4년(1678) 4월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자신의 문집에서 관악산 영주대를 오른 감회를 남겼다. 지금이야 난간도 있고, 줄도 있어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오르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시절 이곳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허목은 다녀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관악산에 들어가 영주대(靈珠臺)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지금 생각해도 두려워 떨리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길과 비교하면 오히려 평탄한 길이었소. 늙은이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함에 다만 딴 사람들이 알까 두려우니 우습소. 못다 말하오."

그밖에도 17세기에서 18세기에 발간된 안헌징(安獻徵)의 구포집(鷗浦集), 심유(沈攸)의 오탄집(梧灘集), 김유의 검재집(儉齋集), 이만부(李萬敷)의 식산집(息山集)을 비롯해서 이익(李瀷)이 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 등 여러 문집에는 이곳을 영주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익은 1704년 4월 관악, 원각 두 절을 지나 영주대 아래에 이르렀다. 영주암 터에서 휴식하고 드디어 대에 올랐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암도 폐사의 어려움을 빗겨갈 수 없었나 보다.

염주암을 거쳐 연주암으로 변천

사찰 명칭이 영주암(靈珠庵)에서 염주암(念主菴)으로 불린 것은 정조 무렵이다. '주군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며 여기에 주군을 사모하여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다보았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연주암(戀主庵)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정조에게 전한 이는 채제공(蔡濟恭)이었다. 그는 나이 67세가 되던 정조 10년(1786년) 관악산에 올랐다. 산행을 한 소감을 적은 것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이다. 그는 이곳을 염주대(念主臺)로 적고 있다.

정조 13년(1789) 12월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과 채제공을 소견하였을 때다. 정조가 태조의 장남 진안대군(鎭安大君)이 위화도 회군 이후 가족을 데리고 세상에 숨어 살 뜻으로 철원 보개산에 들어가 은거한 것과,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가 일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고 하사받은 토지와 집을 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여생을 보낸 것에 대해 훌륭한 일로 말하였다. 그리고 양녕대군의 덕행과 의리도 그에 못지않았는데 그것은 세종이 온전히 보전해 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자 채제공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관악산 제일봉(第一峯)에서 경복궁이 바라보입니다. 양녕대군도 필시 여기에 올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차일(遮日)을 쳤던 흔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주대(念主臺)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채제공의 말에 의하면 주군을 생각한다는 염주대의 내용은 그 무렵 세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양녕대군의 이야기에 효령대군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연주대(戀主臺)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된다. 효령대군 이야기가 더해진 것은 그가 사후 과천 북쪽 동적리(同積里)에 묻혔고, 연주대에 효령각(孝寧閣)이 세워지고 영정을 모시면서 더욱 굳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 후부터는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박윤묵(朴允默)의 존재집(存齋集)에 연주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후부터는 그렇게 불린 것 같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수락산 염불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44-155 Tel 02)938-9395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